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앙당, 당원 겁박 말라”

기자회견서 민주당 지도부 성토
“당원 사찰·징계 협박 중단하라”
“타후보도운 당원 징계 공포 조정”

민주당 전북지역 권리당원 30여명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지도부는 당원에 대한 사찰과 가

혹한 징계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떠한 협박도 우리의 양심을 꺾을 수 없기에 뜻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투표할 것이다”며 “지도부는 도민의 뜻을 단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를 초고속 제명으로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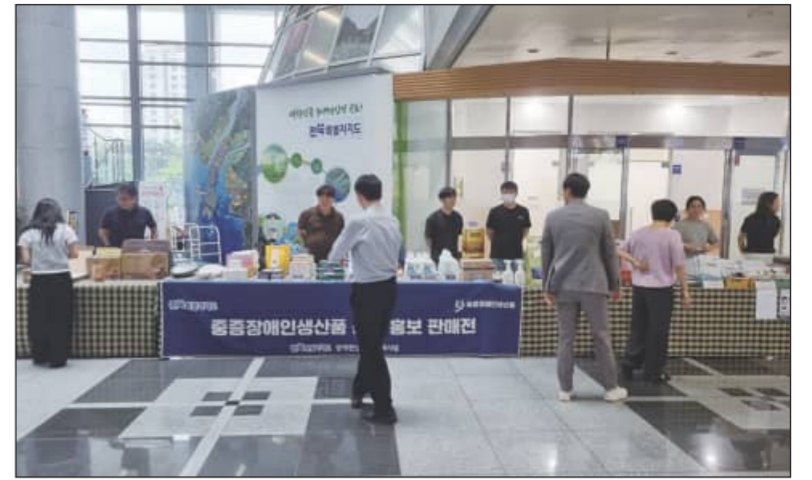
또 “민주당 중앙당은 암행 감찰단을 파견,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는 한편 소신에 따라 무소속 김관영 전복지사 후보를 돕는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서 공포를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현직 도의원 김정수, 김명지 의원이 배석했다.

/장정철 기자



김정수 도의원

김명지 도의원



<사진=전북도>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

도청 로비서 상반기 순회 판매
현장비대면 병행 판로 확대

전북도가 26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구매 참여를 확대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할 가운데 누 룡지와 육포, 김, 구운소금 등 식품 류와 비누, 세정제, 물티슈 등 생활 용품이 판매됐으며, 현장 구매와 함께 유선·이메일 주문 방식의 비대

면 판매도 병행 운영됐다.

도는 이번 전시·판매를 통해 장애인 생산한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순회 일정은 지난 13일 고창군청을 시작으로 27일 진안군청, 28일 익산시청으로 이어진다. 나머지 시군은 하반기 중 추가 판매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정성을 담아 생산한 우수 제품들을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새만금, 개발 넘어 첨단산업 중심 전환해야”

“새만금사업법 혁신형 개편 필요”
메가센드박스 법제화 필요성 제기
규제혁신·인프라·용지 연계 추진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이 개발 중심에서 기업투자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제혁신,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지원까지 포괄하는 ‘산업혁신 실행 법령’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은 30여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은 아직 충

분하지 않다는 평가와 이제는 첨단전략 산업기지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드박스’가 반영,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와 산업생태계 지원이 결합된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여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수소도시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지·인프라·제도’의 3대 축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먼저, 새만금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해결과 로봇·수소·AI 등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려면 매립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좌우할 새만금항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과 남북3축 도로 예타면제 등 핵심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이 선결 과제다.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새만금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거나 여러 부처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세제·재정·정주여건 지원까지 패키지로 받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전북도는 기업의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인허가 협의, 인센티브 지원을 연계하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드박스’를 새만금사업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드박스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메가센드박스 운영방식, 새만금사업법 개정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주요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및 국회 건의를 이 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전북 성공 5대 프로젝트 100대 공약 확대하겠다”

투자·일자리·생활·미래 성장추진
AI인재 1만명·청년창업 1천개 육성
“국정방향 전북 성과로 연결”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6일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전북성공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 도민 삶의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용과 성과, 민생 중심 국정, 균형발전, 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 방향은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가 전략을 누가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 도민 삶으로 실제 연결해낼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발전은 간판이나 공천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고 기업을 움직이며 결과를 만드는 실행력으로 이뤄내는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실행력을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선9기 핵심 전략으로 △투자 △일자리 △생활 △지역 △미래 등 5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전북성공

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선 투자 성장축 분야에서는 50조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계열사 15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50조 투자유치는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투자협약을 차곡으로, 착공을 고용으로, 고용을 청년의 월급과 지역기업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성장축에서는 전북형 퀵스타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1만 명, 청년 AI CEO 1000명, 청년 창업 기업 1000개 육성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북에 남을 이유”라며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고, 전북에서 창업하며 살아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활 성장축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함께 △전북형 만강 산후조리 △365 돌봄 △농촌형 이동돌봄 △여성 안심귀가 △어르신 버스비 지원 △마을간호사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성장축에서는 새만금 중심 성장에 머물지 않고 14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강조했다.

전주는 금융·문화·청년창업 중심도시, 군산은 미래차·항만·에너지 전진기



<사진=김관영후보측>

지, 익산은 식품·바이오·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부권은 농생명·치유관광·공공의료·미래산업을 연계한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축에서는 RE100 산업단지, AI 메가캠퍼스,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수소산업, K-푸드 수출허브, 자이언트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도시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라며 “도전하지 않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성공 5대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약집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전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핵심공약 35개와 매니페스토 100대 공약을 통해 도민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전북의 성공과 함께 가야 한다”며 “멈추지 않는 전북, 김관영이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김관영, 대통령 이용 정치 중단하라”

“이름 앞세운 착시정치” 비판
금품 논란 제명 거론 공세 강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6일 김관영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도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이름을 훔친 알박한 정치로 전북의 미래를 인질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치열하게 정책을 겨뤄야 할 선거판이 한 후보의 참담한 기반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분노를 넘어, 전북 정치를 지켜오신 도민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후보는 명백한 금품 제공 사실이 영상으로 폭로돼 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이라며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나 덮어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는 전북도민과 민주당의 얼굴에 먹칠을 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김 후보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상관도 없는 정청래 당 대표를 끌어들이고, 이제는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명분 없는 출마를 대통령 이름으로 포장하고, 민주당과 연결된 후보인 것처럼 착시를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양두구육식 정치 행태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런 폼수 정치인에게 전북의 100년 대계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이름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도민에게 가차 민주당 행세를 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금품 선거로 제명된 인물이 대통령의 이름까지 팔아 전북 선거를 왜곡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가지 안전 수칙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규정속도 준수로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출발 전 안전띠 매는 습관 들이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전주시 여름 폭염 '취약노인 보호대책' 가동

생활지원사 활용 안부 확인 무더위쉼터 운영 등

전주시가 여름철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시는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주시 돌봄대상 노인은 10,536명으로 전체 노인인구(125,455명)의 8.4%에 달한다. 이번 폭염 보호 대책은 저소득·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활용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 강화 △독거노

인 응급안전서비스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지역 자생단체와 통·반장 활용 사각지대 발굴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취약 노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생활지원사(404명)가 독거노인 약 59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과 폭염 행동요령을 직접 전달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도 즉시 가동하며, 무더위가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 운영도 대폭 내실화한다. 시는 경로당 369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쉼터 내 적정 실내 온도는 26~28℃로 유지되며,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폭염 발생 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비상구급품과 응급조치 요령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무더위쉼터 위치와 이용 방법은 통장회의·자생단체·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홍보해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니어클럽 등 1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실의 활동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35개 동 주민센터의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들은 휴식기(6월~9월) 동안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6월 중에는 동 주민센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기 물품을 지급하는 등 야외 활동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5개 무료경로식당과 7개 도시락배달기관에 대해서는 폭염 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식품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시는 35개 동, 노인맞춤돌봄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협력해 민간 후원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 노인 지원과 연계를 확대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폭염대책 기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일일 안부 확인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어르신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제9회 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도내 총 831개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특별경계근무를 위해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등의 선거 관련 시설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등의 선거 관련 시설 대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특별경계근무는 도민 안전투표 참여 위한 선거 관련 시설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선거 관련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 16개소 △사전투표소 243개소 △투표소 557개소 △개표소 15개소 등 총 831개소다. 전북소방은 시설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시설 주변 예방순찰도 강화한다. 기존 1회 실시하던 예방순찰을 1일 2회로 확대하고, 사전투

표소와 투표소 주변에는 기동순찰노선을 추가 편성한다. 이와 함께 △출동로 장애 △불법주정차 △인파 밀집 등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현장 계도와 관계자 개선 요청을 병행한다. 개표가 진행되는 6월 3일에는 도내 개표소 15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할 예정이다. 근접배치는 개표 시작 전인 오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소방차량 17대 △소방공무원 63명 △의용소방대원 4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전 직원 비상연락망과 비상응소태세를 매일 점검하고, 소방차량과 구조·구급·통신장비 등 출동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한편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도시 '한 걸음 더'

완산구 내 신재생에너지 총 323개소 보급 지원

전주시가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 산업통상부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

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산업·주택시설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0억 76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참여업체와 협약체결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

비는 2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완산구 일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290개소(1134kw) △태양열 11개소(149.6㎡) △지열 22개소(385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69M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연간 474to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615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총 158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심리·신체·경제적 지원 필요한 아동 의료비·필수물품 등 신속 지원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 후 사례 판단하기 전 또는 사례 판단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최소 20가정을 대상으로 17구 당 50만 원 이내로 신속 지원에 나서 가족기능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 긴급하게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검진비와 필수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자녀 양육 기술과 학대 예방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가족간 유대 활동 및 감정공유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학대 판단 전·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 아동 40명에 대해 의료비와 돌봄서비스, 생필품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호남고속도로 정읍TG서 단속 실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는 도로 교통안전에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와 전북청 체납징수팀, 정읍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5개 기관이 참여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호남고속도로 정읍TG에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최근 화물차 관련 대형 교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화물차 과적 및 적재 기준 위반, 적재물 이탈 방지 위반, 속도제한 장치 해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을 넘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

도·진흥원·시군·대학·기업 협업체계 구축

전주시가 전북도,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도내 평생학습도시, 지역대학 및 기업과 손잡고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전북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기관 간 사업관리 지원체



전주시는 26일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날 지역 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호원대

학교 RISE사업단 △우석대학교 교양대 △KKTcs와 별도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의 교육 자원, 전문 인력, 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전

주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와 협력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로컬 학습 시대를 여는 동고동락(同高同樂) 학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50+어른학교 △50+인생학교 △지역교류사업 △스마트 폰 활용교육 감사 보수교육 △매출페스티벌 부스 참여 등이다. 특히 전주대·우석대·호원대는 로컬플러스 사업 분야에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KKTcs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 사업 운영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역·진흥원·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삶의 전환기에 필요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 AI 시대 연다'

전북대병원이 디지털 전환 통한 지역거점병원 의료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10억여원 규모 국비를 확보 했다. 사업은 중증·고난도 필수요료를 책임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AI 기술을 접

목해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 AI 기술을 실제 진료현장에 접목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중증·응급·필수요료 분야의 진료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진료 효율화 △환자 안전 강화 △진료 정밀도 제고를 3대 핵심 목표로 삼고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진료 정밀도 면에서는 흉부 질환 및 폐결절 자동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뇌경색, 유방암 등 주요 중증 질환의 진단 보조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공지능이 입원 환

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심정지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북대병원은 이같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중증 환자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연결형 진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폭염 대응 24시간 119응급상담체계 운영

응급처치 안내부터 병원 연계까지

전북소방본부가 도민들의 여름철 폭염 대응 강화를 위해 24시간 119 응급상담·병원선정 지원체계 강화한다. 전북소방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열탈진·열경련·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고령층과 농촌지역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도민 보호를 위한 응급상담 기능과 병원 연계 대응체계를 강화해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해 전북소방은 초기 응급처치 안내와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온열질환

의심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증상에 따라 체온 낮추기, 수분 섭취 방법, 환자 이동 시 주의사항 등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과 병원선정 지원도 함께 실시해 응급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현황도를 사전에 확보해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전북119상담'을 활용한 비대면 응급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전화 신고 외에도 모바일 기반 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체계에 강화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지역경제 회복 방안 논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협의회 개최... '실질적 지원 확대할 것'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제1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전북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중소기업 위기 징후 파악한 이후 선제적 대응 연계지원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전북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의(의심)' 단계로 분류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특히 총종사자 수는 14.9% 감소하고 총급여액은 11.8% 줄어 고용 기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주의(의심)' 단계 밀집지역보다 1.7% 이상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지역 내 기업 활동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음을 보여준다.

이번 위기대응협의회에는 △전북도 기업애로해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조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협회 △전북테크노파크 등 주요 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기 징후 지역의 원인 분석 △대응방안 검토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경제와 고용의 핵심 축인 만큼, 이번 협의회를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



밀히 협력해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전문가들은 "고용 감소와 총급여 축소가 소비 위축과 내수 기반 약화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의가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는 26일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북전주농협 '조합원 농촌일손돕기' 봉사

농업인과의 구슬땀 행복 털어주고자 마련됐다. 이광우 조합장은 농가일손돕기를 넘어 조합원 농업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으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조합원 농가일손돕기는 26일 북전주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합원 딸기 재배농가의 △작물 정리 △시설정비 △페비닐·영농부산물 수거 등 하우스 정리작업을 도왔다.

이날 함께한 조합원 일손돕기에 북전주농협 임직원들은 행복의 구슬땀을 닦았다. 이번 북전주농협 조합원 일손돕기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광우 조합장은 농가일손돕기를 넘어 조합원 농업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으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관련해 해당농가 농업인은 "수확 이후 하우스 정리 작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큰 도움이 됐다"며 북전주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사를 전달했다.

북전주농협 이광우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저출생 극복 '앞장'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지난해 개최 후 8명 출산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지난 2026 부부의 날(5월 21일) '제2회 부부 소통캠프 '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 행사를 개최했다.

부부 소통캠프는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 2회를 맞았다.

이번 소통캠프에는 결혼 7년 이내 직원 부부 16쌍을 대상으로 '2(둘)이서 1(하나)되는 부부의 날(5월 21일)'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작년 제1회 부부 소통캠프(29쌍) 개최 이후 총 8명의 직원 가정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부부 소통캠프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에는 △결혼 직원 축하금 지급 및 휴양소 지원 △임신직원 대상 모성보호용품·영양식품 지원 △임산부 검진(배우자 포함) 휴가 △임신기 단축근로 △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족친화 근무 제도를 통해 자녀 출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돼 저출생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 직원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부부 소통캠프 '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 행사는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 지급

농업경영체 21만개소 대상 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아직 유가연동보조

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희승 농업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AI 컨설팅, 농업소득 25.9% 증가"

1기작 10아르 기준 약 162만원 상승

농진청은 작년 한 해 전국 55호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경영 전문 상담'을 시범 추진해 작가가 끝난 33호 농가 농업소득 추이를 분석·공개했다.

2025년 발족한 '인공지능 기반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단'이후, 지원단'은 인공지능

을 활용해 개별 농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경영 전문 상담을 제공해 농업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해당 농가의 기본정보를 토대로 가격 적정성과 고용 노동비, 병충해 방제, 관행 시비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농가의 농업소득 변화를 전년도 농업소득과 비교 분석한 결

과, 분석 대상 33호 농가 중 21호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농업소득은 25.9% 증가했고, 1기작 10아르를 기준으로 약 162만원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원단이 인공지능에 경영데이터를 학습시켜 전문 상담 대상 농가와 평균 또는 고소득 농가들의 경영 성과를 비교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소득 상승 전략을 제시한 점이 주효했다.

대상 농가들은 자신의 경영 상태를 전국의 농가 수준과 비교, 확인할 수 있었고, 선진 농가의 경영 방식을 도입해 경영과 생산에 응용함으로써 수량 증대와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농진청청은 오는 7월 이번 전문 상담에서 소득 증가 효과를 못 본 농가 사례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먹거리지원센터협의회 회의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6일 '2026년 먹거리지원센터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먹거리지원센터협의회 1차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군 먹거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여해 시군센터 간 먹거리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도내 시군센터 간 먹거리 교류 활성화 및 도내에서 생산된 먹거리 공급 기반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도내 시군 먹거리·학교급식지원센

터 각 기관은 광역 단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센터 간 운영 협력을 위해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광역 단위 지원 정책 안정적 추진과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의 현장 중심 기능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각 시군센터는 시스템 연계, 실적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에 적극 협력한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그동안 각 센터별 여건에 따라 운영되던 시군 간 먹거리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산 농산물과 지역가공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 개선'

내달 9일까지 제도개선 이벤트 진행

국민연금공단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변경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뀌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신청자가 기관을 매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7월 첫 도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공단에서 그 대상자에게 안내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해당 여부를 통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개선사항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공단 블로그(blog.naver.com/pro_nps)에서는 '기초연금 영상보고, OX 퀴즈 풀고, 선물도 받자!'라는 제

목으로 진행되며 짧은 설명 영상 시청 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정답자와 내용을 공유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6월 19일 공단 블로그에 공개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61년생이 대상이다. /김영태 기자

중진공, GBC 입주기업 모집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GBC는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거점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2개 주요 도시에 설치돼 있다.

현지 사무공간 제공부터 해외시장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GBC 입주기업에는 독립 사무공간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에도 개방형 공유오피스 등 현지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기업들은 이를 발판 삼아 현지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

GBC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현대축산물 구제역 유전자 검출...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현대축산물(순대, 소시지 2건)에서 구제역(FMD)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즉각 전량 폐기 및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축산물(순대 등)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질형 0형)가 확인됐으며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SAT 1형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선제적으로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노선에 대한 엑스

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하고, 외교부 협조로 중국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중국산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불합격 현대축산물은 중국 노선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로 적발한 사례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불합격 현대축산물에서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되고 주변국에서 구제역 형질형 SAT 1형이 보고되는 등 가족전염병 유행 위험이 커진 만큼, 국경검역을 철저히해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가족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고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학교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 ‘하락세’

전년 대비 감소... 전북 65.5% 그쳐 지역 간 격차 뚜렷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하락

한 가운데, 전북 지역 실시율은 65.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실시율은 2024년 68.48%에서 2025년 62.24%로 감소했다.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은 65.53%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77.6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4.04%, 초등학교 56.97% 순이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은 90%를 상회한 반면, 경기(29.75%), 인천(35.40%) 등은 상대적

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문수 의원은 “시도 간 편차는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가로막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종합 지원행정과 법령 정비, 악성 민원 대처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이남호 “천호성,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퇴해야”

텔레그램 비밀방서 단체문자 150만 개 발송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지 교원과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기획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따른 재선거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목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단순 정책 자문이라며 반박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 측이 현지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선무효 가능성에 묶인 교육감이어서는 안 된다”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 측은 지난해 5월 전후부터 비밀 텔레그램 단체방 ‘전사랑’을 운영했으며, 해당 방에는 현지 교사 2명과 전북교육청 7급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이들이 단순 자문을 넘어 선거 핵심 기획에 관여했다”며 “지난해 8월 현지 교사 명의로 공유된 ‘전략기획안’을

비탕으로 150만 건의 단체 문자 발송, 언론 기사 노출 관리, 여론조사 대응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방에서 기획된 프레임이 천 후보의 실제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천 후보의 즉각적인 해명과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천 후보 측은 “해당 온라인 모임방은 사전선거운동 방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방일 뿐”이라며 “천 후보도 그 방에 참여했고, 참여한 현직 교원과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

책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화 내용 중 현수막과 단체 문자 발송 관련 내용은 선거운동이 아닌 출마 예정자의 명절 인사”라며 “이남호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담당 중지하라”고 반박했다.

현직 교원의 선거 관여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며, 임종 시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투표일을 앞두고 불거진 양측의 사법 리스크 공방이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성민 기자

천호성 “이남호, 교육감 부적격 3중 세트” 사퇴 촉구

음주운전·청렴도 쫓겨 언론 매수 의혹 겨냥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이남호 후보를 향해 음주운전 등 교육감 자질 부족을 이유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2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호 후보의 과

거 전력과 재임 시절 의혹을 나열하며 ‘부적격 3중 세트’로 규정했다.

천 후보는 “이 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북 대 총장 재임 시절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점과 이번 선거 기간 불거진 언론 매수 의혹까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육감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 후보는 “SNS 사과문만으로는 유권자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적발 횟수와 처벌 내용, 뺑소니·무면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천 후보 측은 최근 불거진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천 후보 측은 “이남호 후보 측이 주장하는 언론 매수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며,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음주운전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의 도덕성 기준에 따라 이 후보가 스스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견으로 양측의 도덕성 검증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전주향교, 유학생 대상 성년례 ‘관례’ 거행

지난 24일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성년례 행사가 전주향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 유학생들이 참가해 전통 성년례인 ‘관례(冠禮)’행사에서 한국의 전통 예절과 성년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행사는 국가유산청, 전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인 ‘사방까지 어리광인가’관례를 주관해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착용한 가운데 관자로서의 예를 배우고

성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덕목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예절을 계승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책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한국 전통문화 영빈례, 시가례, 재가례, 초지례, 자명지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한국전통의 숨결을 느끼며 성년식을 마쳤다”고 말했다.

전주향교 유도회 최귀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국립의 전통 예절과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향교> /장정철 기자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 28일 개막

30일까지 작품 10편 상영

익산에서 장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영화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제18회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기록으로 전하는 안부를 주제로 장애인의 삶과 자립, 관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삶과 선택, 일상 속 관계를 담은 작품 10편이 상영된다.

첫날인 28일에는 △농담 △시설 밖, 나로 살기 △새이와 도하가 상영된다. 29일에는 △소리의 소리 △우리가 만든 껍질 △안보영 프로젝트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이 관객들과 만난다.

30일에는 △나의 자립일지 △희망의 기록2 △반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상영작은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작품 제작 과정과 의미를 관객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동 경사로와 휠체어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상영작은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이 포함된 ‘기차’로 ‘비전’으로 상영된다.

모든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된다. 단체 관람은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이라야 작가와 함께하는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 판매에 머물며 시민들과 문학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올해 시립중앙도서관 상주작가로는 아동과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라야 작가가 나선다. 이 작가는 최근 출간한 ‘파이트’를 비롯해 ‘월드 보이 선생님’, ‘미확인 바이러스’, ‘AI 시대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나는 오늘 칸트를 만나 행복해졌다’ 등 어린이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이번 사업은 연례별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해 다양한 맞춤형 문학 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성인을 대상

으로는 지역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정읍 아카이브, 정읍을 담고 쓰다’와 세계 고전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고전, 클래식은 영원하다’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문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사춘기는 처음이라’를 통해 사춘기의 심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 방향을 찾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책과 나 VS 챗지피티’ 과정을 열어 책을 읽으며 스스로 만든 질문과 인공지능이 만든 질문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질문 생성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욱 친근하게 접하고 지역과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서군산체육센터, 하절기 운영시간 연장

군산시는 여름철 증가하는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군산체육센터 평일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던 평일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확대되며, 대상 시설은 수영장을 포함한 서군산체육센터 전 시설이다.

군산시는 여름철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연장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장 운영 시간대에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근무조를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수상안전 근무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군산체육센터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원인보위기기경보 ‘주의’ 발령중

에너지이껴쓰기 함께 해주세요!

1.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실내 직장은도 유지
3. 불필요한 조명끄기 등 절전
4. 충전은 낮시간에



정읍시메가쇼' 출격...

농산물 가공 제품 경쟁력 입증

정읍시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메가쇼 2026 시즌1'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 가공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는 이번 전시에서 귀리, 지황 등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그래놀라와 귀리 선식, 쌍화 농축액을 내놓았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 쓰임새를 넓히고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딸기 퓨레 제품도 함께 선보였다.

특히 딸기 퓨레와 쌍화 농축액은 카페나 디저트를 만드는 반가공 원료로 관람객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센터는 현장 시식 행사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제품의 활용도를 알리면서 시장의 생생한 반응을 살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거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을 보완해 오는 6월 안으로 온라인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역 농산물 가공 제품의 성공 가능성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가 창업과 제품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늘 "해상화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과 함께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산소방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등 총 13개 기관, 선박 10척, 약 100여명이 참가하며, 케미컬운반선이 위험·유해물질(에피클로로하이드린) 하역작업 중 총동로 인한 화재 및 이송파이프 균열·파손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부여해 사사고 상황 전파 △인명구조 △누출부위 봉쇄 △유해물질 탐지 △화재진압 △방해조치 및 제독 등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한다.

양병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양환경에도 치명적인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해상화해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공공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집중 점검

정읍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성폭력상담소와 합동으로 지역 내 공공 이용 시설을 돌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주로 찾는 기적의 놀이터,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히어로즈, 인산물체현단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화장실과 탈의실 곳곳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 장비를 동원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시는 해마다 불법 촬영 점검을 비롯해 성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여름 휴가철인 오는 8월까지 수영장과 여객 터미널 등 단속이 필요한 장소를 골라 경찰,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단단히 다져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불법 촬영을 뿌리 뽑고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익산, 시민 중심 행정 강화 2(題)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지난 2월 군산시는 2022년 제정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됐으며, 지원 금액도 상향했다.

주요 확대 내용은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에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지원 범위는 전세자금 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까지 포함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5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임산출산육아가이드북' 발간

익산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임산·출산·육아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정부와 익산시의 지원 정책을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용서로 △임산·출산 지원 △맞춤형 육아 서비스 △맞벌이 가구 지원 등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구성했다.

특히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등 국가 주요 지원 정책은 물론, 익산시의 특화 정책인 △출산장려금 △임산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도 담겨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가이드북은 지난달 기준 부모급여를 수급 중인 가정

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 수도산장난감도서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매년 가이드북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발간한 가이드북이 영유아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AI 활용한 '갯토리송' 제작

지역수산물 브랜드 홍보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갯토리송 캐릭터 '갯토리'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음악 콘텐츠 '갯토리송'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갯토리송은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음악 콘텐츠를 접목해 쉽고 재미있게 브랜드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서로 다른 분위기의 2곡으로 제작됐다.

갯토리송은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지승길 기자

특히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 콘텐츠를 선보이며 행정 홍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홍보 콘텐츠 등에 갯토리송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한편, 지역 대표 수산물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갯토리를 홍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군산 대표 수산물인 갯토리송 브랜드 갯토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새 단장

정읍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전국을 달리는 화물차에 지역 명소 광고를 붙여 대대적인 관광 홍보에 나선다.

시는 최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일대에서 제초 작업과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차고지 안쪽 주차 구역을 비롯해 진출입로, 주변 녹지, 배수로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면서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치워 시설 전반의 관리 수준을 높였다. 특히 많은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차량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와 함께 시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화물자동차를 활용해 정읍 관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택시 507대에 '정읍의 명소 5경'을 주제로 한 외부 광고를 붙였다.

이와 같은 달 29일에 4대를 추가하면 현재 총 511대의 택시가 지역 명소를 알리고 있다. 여기에 정읍항우회 소속 기사가 운전하는 전주 택시 100대에도 외부 광고를 부착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시설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우수기업 뭉친 '취업박람회' 개최

28일, 하림 등 8개 기업 참여·41명 채용 예정

익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들과 손잡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위한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2026년 익산 일자리다모아 성공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익산시와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익산 통합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서류 전형 위주의 복잡한 채용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한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실용형 채용 박람회'로 꾸며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하림 △원광경제 △순수분 △코아바이오 등 익산에 뿌

리를 둔 지역 우량 기업 8개사가 참여해 대규모 인제 채용에 나선다.

채용 규모는 총 41명으로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생산직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직, 연구직, 마케팅 분야까지 직군도 다양하다.

구직자들은 행사장에서 기업별 인사 담당자와 1:1 현장 면접 및 깊이 있는 채용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현장에서 즉시 구직 등록과 함께 맞춤형 취업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무겁고 딱딱한 면접장 분위기를 탈피한 다채로운 감성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취업 준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을 비롯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 과학적인 진로 탐색을 돕는 '지문적성검사' 등이 전역 무료 운영돼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직

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 다양한 고용·창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당일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곧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통합일자리센터나 온라인 플랫폼 익산 일자리다모아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취업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과 익산의 역동적인 미래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용 시장을 조성하고, 면접 이후에도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일자리 걱정 없는 안심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나선다

143명 대상 인권 침해 여부 및 노동환경 점검

정읍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인권 침해 여부와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업무협약 방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이들에 비해 소용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들의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현재 정읍 지역 150여 농가에는 71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근로자 대상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고용주와 근로자 현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차례로 살피고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숙소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소규모로 짧은 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시는 하루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공

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3일에서 5일 전 생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하루 1인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꾸준한 운영 실태 점검을 거쳐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세워 농업 인력난을 풀고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우기 전 마을안길 복구 속도

내달까지 8개소 공사 마무리... 실시설계 착수

익산시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안길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긴급복구를 마친 지역 내 마을안길 8개소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임시 복구 상태인 피해 구간을 정비해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단순히 수해 지점만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주변 도로 노면까지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구간과 인접 도로의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한다

방진다. 시는 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우기 이전에 모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긴급 복구 이후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기업 3곳에 '사랑의 열매' 감사패 전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읍시가 지난 22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온 우수 기업 세 곳에 사랑의 열매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과 연중 기부에 동참해 지역 공존체 복지를 늘리는 데 힘써온 기업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예로운 감사패를 받은 우수 기부 기업은 정읍 농업협동조합, 정읍새마을금고, 대신영농조합법인 등 총 세 곳이다. 이들 기업

은 지난해에만 2,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특히 10년 이상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면서 지역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동원 “양충모, 토론 거부로 검증 회피”

양충모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환경·농업 정책토론회 모두 거부 강동원 “준비 부족 감춰” 비판



양충모 후보

강동원 후보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후보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 선거” 구호 뒤에 숨어 실제 검증 토론회는 줄줄이 거절하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양충모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강 후보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 후보가 남원의 미래가 걸린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의 정책토론회 제안을 연이어 거부한 실태를 언급하며 공식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후보 측은 따르면, 양 후보는 최근 남원 지역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검증 자리를 모두 회피했다. 남원의 환경 정책을 검증

하기 위한 ‘남원기후환경연대’의 정책 토론회를 거절한 것은 물론, 남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의 정책토론회마저 단칼에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양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양무새처럼 ‘정책 선거’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남원의 핵심 근간인 농업과 환경 분야의 정책 검증은 철저히 도망 다녔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질문을 거부하는 후보가 어떻게 남원의 미래 정책을 논하고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참모로 대답한 기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후보는 “선거 현수막마저 서울에서 공수해 오더니, 남원 농민과 시민들의 눈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것이냐”고 양 후보를 몰아붙였다.

강 후보는 양 후보의 연이은 토론 거부가 ‘준비 부족’과 ‘남원에 대한 무지’를 감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진단했다. 타 후보들의 공약과 저 강동원의 핵심 정책을 단어만 바꿔 삽입해 오다 보니, 각 분야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현장 토론회에 나오면 필적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어버렸다는 분석이다.

강 후보는 “오직 성공과 출세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 최일선에 복무했던 경력, 그리고 남의 공약을 짜깁기한 부실한 정책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에촌, 전북관광재단 유니크베뉴 선정

한옥 활용 MICE 경쟁력 인정 한복다도체험 등 콘텐츠 강점

남원시의 대표 전통한옥 문화공간인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6 전북 유니크베뉴 신규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북지역만의 특색 있는 행사·회의·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남원에촌은 전통한옥의 정취와 체험 콘텐츠 운영 역량을 눈에 띄게 평가받아 최종 선정시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에는 남원에촌 등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심사평에서는 남원에촌에 대해 “한옥의 정취와 업체의 MICE 행사 개최 의지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했으며, “전통한옥을 활용한 전

통주거 문화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한복체험·다도체험 등 부속객 참여 프로그램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남원에촌은 관광무원 인근에 위치한 전통한옥 숙박·문화체험시설로, 전통 구들장 한옥 숙박과 함께 다도체험,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한옥 경관을 활용한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체험형 관광 활성화와 MICE 관광 수요 유치에 힘쓰고 있다.

오미션 관광시설과장은 “앞으로도 관광무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남원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고전소설박물관 청년인턴십으로 전문인력 양성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이 국립한국문학관 주관 ‘2026년 문학관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문학관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문학관 전문인력으로서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은 이를 통해 예비 문학관 전문인력의 지역문화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문학관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문학관 운영 업무에 참여해 교육·전시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보조, 소장품 관리,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학관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 인재들의 문학관 현장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 기반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문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 홈페이지(nmkl.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학관 관계자는 “청년인턴이 문학관 운영 전반의 현장 실무를 경험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외국인 유학생 농촌체험관광 ‘호응’

‘체험비 보상금’ 연계 프로그램 KOPL:로컬잇 협력 체류 콘텐츠

순창군이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황토열매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군의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체험비 보상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됐다.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OPL’, 로컬관광 콘텐츠 기업 ‘로컬잇’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순창의 매력적인 농촌문화와 체험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가 진행된 황토열매마을에서 참가자들은 △고추장 만들기 체험 △농촌마을 숙박 △야외 운동회 △밤하늘 별보기 등 다채로운 농촌 콘텐츠를

를 체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순창의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한국의 농촌형 ‘K-컬처’를 보다 친근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순창의 농촌과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한 만큼, 개인 SNS와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순창 관광의 매력이 전 세계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행사를 발판 삼아 향후 장류·발효문화, 농촌 체험마을, 로컬푸드를 연계한 ‘외국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창장류축제의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고 머물 수 있는 ‘순창형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체납관리단, 현장 징수활동 ‘성과’

유형별 맞춤형 징수 효과 나타나

순창군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거주지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실제 생활여건과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와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안내 등 상황에 맞는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체

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변호판 영치, 차량 공매,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 이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 징수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체납액 징수 성과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소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질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괄부서와 부과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생산부터 식탁까지” 로컬푸드 체험

소비자 농촌체험 요리교실 진행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는 ‘2026년 농촌체험 사전 답사 여행(캠투어) 및 요리교실’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 소속 전복삼락로컬마켓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12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생산자와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 행사는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넘어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유인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산물 재배 교육을 받고 생산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철 농산물인 상추를 직접 수확하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웠다.

이어 수확한 상추를 활용해 상추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교실을 열어 상추의 영양학적 이점과 활용법을 익히고,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며 로컬푸드를 더욱 친숙하게 즐기는 법을 체득했다.

정명석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삼례읍 한별고서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교육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관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마음챙김 자살·자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마음체인저-건강한 마음, 소중한 우리’를 운영했다.

최근 한별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마음 이해하기 △마음의 괴로움 다루기 △자해로운 도움 요청 방법 알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호흡 안정화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질의응답 시간을 병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배우고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어려움을 처한 또래 친구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참기보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느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기본소득으로 지역 선순환” 해법 모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순회형 복합장터·생활서비스 제안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기본서비스 기반 창업과 공동체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18개소와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청년 서포터즈 ‘농촌의 아이들’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핵심 과제로 단순한 시설·공간 부족이 아닌, 사람과 사람, 주민과 조직, 서비스와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먼 단위 지역의 경우 평균 2천 명 내외의 제한된 소비

시장과 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공급과 공동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순회형 복합장터와 이동형 생활서비스 모델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먹거리·문화·교육·돌봄·이미용·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권역별 순회형 복합장터를 운영해 주민 이동 부담을 줄이고, 기본소득 소비를 지역 경제 순환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지역 활성화의 핵심 조건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 마련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주거·일자리·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지역 코디네이터’ 또는 ‘조력자’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경제·복지·돌봄·공동체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총괄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첨단 기술 활용 농지 전수조사 착수

2027년까지 13만여 필지 집중 점검 LX 협력 스마트 영농관리 고도화

남원시는 농지 투기 차단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6월부터 2027년까지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남원시는 현재 조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39명 규모의 농지조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남원시 전체 농지 136,111필지, 16,588ha며 2026년 12월말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3,583필지(15,440ha)를 대상으로 ‘기

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나누어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기본조사(86,838필지)’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물론,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내역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36,745필지)’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필지를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행위, 무단 농지전용, 휴경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투

입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5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스마트 영농관리서비스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남원시 전체 농지의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이번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결합해 불법 전용이나 위법 의심 농지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위성·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해 성과 공유”

AI 행정 접목 부서별 성과공유회 행정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완주군이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부서별 성과공유회’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정책 성과와 군민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부서별 실적이나 수치 중심 보고에서 벗어나 각 부서 정책이 군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공유회는 주요 정책 성과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정책 효과와 지역 변화상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공유했다.

특히 이번 공유회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이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성과를 실제 행정업무에 접목했다는 점에

서 의미를 더했다.

군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우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미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 계북면, '계북면민의 장' 임명순 의용소방대장 선정



장수군 계북면은 '제77회 계북면민의 장' 면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로 임명순 계북면 의용소방대장(사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명순 대장은 현재 계북면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 등 지역 안전을 위한 현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각종 지역 행사와 면정 추진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임명순 대장은 지난 2012년 계북면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을 역임하며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으며, 2021년에는 농가주부모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평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인선 면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면정 수행에 헌신해 온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계북면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본격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공무원·LX공사 직원 상주

무주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 현장사무소는 2026년 사업지구 중 일필지조사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한 무풍면 원평·북리·상하·고도, 설천면 외양지 지구(1,480필지, 446,277㎡)에서 운영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무풍면 원평지구 구로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는 북리지구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며 무풍면 상하지구, 고도지구, 설천면 외양지 지구는 측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재조사 관련 마을 설명회

<사진=무주군>

해당 기간 관련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현황 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제작한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송규원 지적재조사팀장은 "협의 자료로 활용되는 도면은 기존에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만든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

하면서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줄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무주군청 민원봉사와 지적재조사팀(063-320-2724)에서도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비료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토양검정 결과 기반 비료사용처방서 활용법 홍보

장수군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센터장 이수란)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비료 사용처방서 활용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과다 비료 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과학영농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토양검정 결과를 기반으로 한 비료 사용처방서 활용법과 퇴비·액비 등 대체 자원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군은 작물별 생육 특성과 토양 상

태에 맞춰 필요한 양분 적정하게 시비할 경우 비료 사용량 절감은 물론 경영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 유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 500g 정도를 채취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되며 분석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와 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수란 센터장은 "비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토양검정에 기반한 과학적인 영농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비료 사용처방서를 활용한 작목별 적정 시비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관광·특산품으로 경쟁력 강화

옥정호 붕어섬 연휴마다 최다인파

임실N장미축제 첫 개최

임실군이 석가탄신일 황금연휴 기간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에 전국 각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3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2만 5천명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동절을 낀 황금연휴 기간에도 나흘간 2만 3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올 봄 옥정호 일대는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봄꽃 명소로서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6월에는 수국 개화를 앞두고 있어 계절꽃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휴장일인 26일에도 휴장없이 특별운영에 들어갔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기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약 2만평 규모의 장미원에는 150여종의 장미가 만개해 18만송이의 장미물결을 이루고 다양한 계절꽃이 어우러져 유럽형 정원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 광주주류관광페스타 참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주류식품 가공 기술 홍보

임실군이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군 산하(제)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지난 5월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광주주류관광페스타에 참가해 임실지역 특산자원과 연구소의 주류·식품 가공 기술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연구소는 임실지역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와 매실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가능성과 함께 과실주 및 증류주 제조 공정,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복

숭아 과실주와 증류주 제조 공정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주류 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실 착즙액을 기반으로 한 발효, 여과, 숙성, 병입 공정과 증류주 생산공정 등을 시각 자료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주류 제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페스타 참가는 임실지역 특산 자원의 우수성과 연구소의 식품·주류 가공 기술을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복숭아, 매실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실주, 증류주, 발효식품 등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사회복지담당자 심리적 소진예방 교육

임실군은 지난 22일 운암면 옥정호 일대에서 관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근무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담당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붕어섬 탐방 등 자연 속 힐링 코스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직접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힐링 디퓨저 DIY'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숙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감정노동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장수군, 숙박·민박업 합동단속

장수군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내달 30일까지 '2026년 숙박업 및 민박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숙박·민박업 관련 안전·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축산위생과를 중심으로 농산업 정책과와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등록) 후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업소 및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을 통해 확인된 무신고 의심 업소 등이다.

특히 숙박업·민박업 등록 및 신고 여부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불법·편법

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보완조치를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전국 파크골프대회 스포츠마케팅 효과 '톡톡'

진안군은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진안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파크골프 동호인 1,2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거쳐 남녀 각 160명씩 총 320명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기 결과, 최종적으로 남자부에서는 신기찬(대구)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정여진(경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대회 전부터 참가자들이 경기장을 익히기 위한 연습 라운딩이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350~400여 명이 진안군을 방문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참가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역상품권 역시 농특산물 구매와 먹거리 부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 커피 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체력 회복과 편안한 경기 운영은 물론 군 이미지 향상에도 힘을 보탰다.

/진안=전길빈 기자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상황실 설치

무주군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감염 시 치료가 어려워 신속한 예찰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무주군은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평

일(09:00~22:00)과 휴일(09:00~14:00) 비상근무 체계(2인 1조)를 유지하며 집중 예찰에 나선다.

종합상황실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찰 및 의심 나무 신고 대응, △긴급 예찰지원단 운영, △발생 필지 현장 정밀 예찰, △긴급 방제 및 매몰 현장 점검, △중요·전북특별자치도 상황 공유 및 비상 연락 유지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6개 읍면의 사과·배 과수 농가는 총 1,294농가, 787ha이며, 이 중 34농가 24ha를 관리과원으로 지

정하고 예찰 방제 지도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추진해 병해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상병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사전 예찰과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과수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주력

임실 덕치면,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자연재해·화재 등 예방

임실군 덕치면은 내달 19일까지 여름철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분야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상태 △전선 기시설 배선 이상 유무 및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경로당 주변 축대·배수로·지붕 등 시설물 안전 상태 등으로,

경로당 회장 및 총무가 점검을 실시하며 도움 요청 시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현장을 나가 살필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 정비 상태와 주변 위험요인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냉방기구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미순 덕치면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보수 및 조치를 통해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 대응 박차

진안군은 26일 군정 상황실에서 이날 보고회에는 전체 실·국·소장과 19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부서별 평가 대응계획과 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부진 지표와 지난해 미달성 지표는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장과 부서장 등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지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와 자질 있는 사업 추진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체 실·국·소장과 19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부서별 평가 대응계획과 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책임성을 강화했다. 진안군은 5개 국정 목표를 기반으로 정량지표 66개, 정성지표 7개를 대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중양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정비 △통합돌봄 운영 내실화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등 정량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는 군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인센티브 확

이어서 "행정평가는 진안군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고산농협, 생산자·소비자와 소통의 장 마련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최근 고산농협웰컴센터(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출하자와 소비자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이야기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별도의 교육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의견을 나누는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 방안 △품질관리와 진열 개선 방안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의 동반성장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고산농협은 이날 나온 의견을 취합해 향후 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품목 확대, 진열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해 오픈채팅방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원주=김명곤 기자



고창 성송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영양가득 반찬 나눔

고창군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국진, 민간위원장 김중학)가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영양가득 반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웃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다양한 밑반찬과 간식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준비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따뜻한 위로와 정을 나눴다.

김중학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며 안부를 살필 수 있어 보람찼다"며 "이번 활동으로 올해 첫 주기를 잘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도 더 알찬 나눔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국진 성송면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헌신 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성송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안산장학재단, 익산병원 임직원 자녀에 장학금 수여

**익산병원 초대 이사장
故 김재백 박사 뜻 기려**

재단법인 안산장학재단(이사장 이준)은 지난 23일 익산병원 연수관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학생 및 익산병원 임직원 자녀 등 총 106명에게 장학금 1억227만여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고등학생 18명, 간호대학생 9명, 문화·체육·예술 분야 특기생 16명, 익산병원 임직원 자녀 63명에게 지급했다.

가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여준 학생들이 포함됐다.

안산장학재단은 익산병원 초대 이사장인故 안산 김재백 박사의 "지역발전은 우수한 인재육성에 있다"는 뜻을 이어받아 설립됐으며, 매년 꾸준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9명에게 약 7억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이준 이사장은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도전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 격려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노인복지센터·예수대 연계 어르신 영양교육

실버 활력충전소 영양교실

완주군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 활력충전소 영양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건강 간식 만들기 체험과 영양교육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활동과 함께 식생활 분야 전문가의 영양교

육을 진행했으며, 식재료별 영양 특성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예수대학교 간호학생들이 참여해 영양교육과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직접 건강 간식을 만들어보며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해 배우고 건강관리 정보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운봉농협 청년회, 축제 수익금 300만원 기탁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6년 남원시 농특산물축제' 기간 동안 남원운봉농협 청년회(회장 이정규)가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300만 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단순한 후원금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운봉농협 청년회 회원들은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대내외에 홍보 판매 부스

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청년회 회원들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제쳐둔 채 축제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부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은 우리 지역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수익금 300만 원을 주저 없이 기부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부안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마제 버스킹 개최

부안군 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숙)는 지난 23일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공연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고마제 버스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동진면 산월경로당 어르신들의 '술가락 난타' 식전공

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 분공연에서는 강나루 색소폰 공연과 꽃바람 고고장구 공연이 펼쳐져 고마제 야외무대를 찾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동안 갖고있던 실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는 죽산면 대장리에 있는 레몬 농장에 행정복지센터 직원 8명이 방문해 레몬 가지 순제거 등을 도와 구슬땀을 흘렸으며, 특히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농가주는 "농번기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보태줘 큰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남부지부, 아동들과 정읍시의회 탐방

굿네이버스 전북남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지난 20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의회 탐방 활동을 진행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아동의 시선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아동들은 정읍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의회의 역할과 운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실제 의회 활동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의회 공간을 직접 방문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 부고

▲ 김종원(전북타임스 남원 주재기자) 부친상

빈소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6년 5월 28일 오전 11시

건강한 생활 습관 으로 건강관리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하루 7~8 시간 숙면



건강한 식습관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一事一言〉



털린 여당과 주위 쓴 야당, 부끄러움은 왜 도민의 몫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판이 걷잡을 수 없는 네거티브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민들의 삶을 바꿀 비전과 정책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폭로와 공방만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공당의 도지사 선거가 이토록 폼짝을 잃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실망감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정치를 향한 혐오와 냉소를 양산하는 진원지가 되고 만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진 방송토론회 '판박이 패널' 논란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졸속과 편법, 그리고 알뜰한 정략으로 얼룩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들어나온 '민선 8기 도정 성적표' 패널은 제목의 자구는 물론이고 데이터의 배열, 강조색, 심지어 동그라미 표시와 줄 바꿈까지 일치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상식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하나의 디지털 원본 파일에서 출력되었다고 봐야 할 수준이다.

이를 두고 무소속 김광영 후보 측이 "거대 야당과 여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토론 자료를 담합하고 공정한 '원팀 프레임'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 의문이다. 거대 정당의 간판을 달고 전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정책 검증의 핵심 무대인 TV 토론회에서 타 후보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듯한 패널을 들고나온 행태 자체가 유권자를 모독하는 처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혹의 중심에 선 이원택 후보 캠프의 안이한 인식과 심각한 관리 부실 태도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원택 후보 측은 "담합은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선을 그으며, 토론회 전날 시안 작업을 마치고 홍보와 수정을 목적으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캠프 단체 대화방에 공개했던 자료가 외부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을 언급했다. 이 해명은 사실상 자신들의 핵심 보안 자료가 아무런 걸러짐 없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자인한 꼴이다.

도지사 선거 캠프의 핵심 기밀이자 후보의 강력한 무기여야 할 토론회 패널 자료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의 손에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캠프 내부의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선거 캠프는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다.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를 보좌하고 미래의 도정 기획을 조율하는 예비 공적 기관이다. 그런 조직의 보안과 관리 체계가 이토록 허술하다면, 향후 전북도정이라는 거대한 광역 행정 조직과 수많은 공적 기밀을 어떻게 온전히 다루고 관리하겠다는 말인가. 일개 캠프의 단톡방조차 관리하지 못해 핵심 정보가 경쟁 당으로 흘러가게 방치한 무능과 부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측의 해명 역시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후보와 정책팀이 직접 공부하고 찾아서 만든 것이라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검증 자료 앞에서는 공허한 궤변에 불과하다. 만약 민주당 자료를 SNS를 통해 슬쩍 입수해 자신들의 성과인 양 토론회에 들고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당의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정책적 성의마저 저버린 행위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전북지사 선거가 정책적 고뇌와 독창적인 비전 없이,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자료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로 베끼고 유출하는' 난장판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전북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허술한 관리 부실로 안방 자료를 통째로 털려놓고도 남 탓만 늘어대고,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그 여당의 자료를 그대로 주위다 쓰면서 정책적 성의 없이 무임승차하는 악순환 속에서 전북의 발전 과제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제 선거는 불과 일주일 남짓 남았다. 전북도민들은 눈과 귀를 가리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과 부실한 캠프 운영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후보를 원치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지역 여당의 후보답게 캠프 내부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유출 경위를 도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자료의 출처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후보는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진정성 있는 정책 선거로 복귀하라. 도민들의 준엄한 눈이 유출된 패널의 동그라미 속에 담긴 위선과 무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농기계 사고 예방,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콤팩트 등 각종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에게 발생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경운기 전복, 트랙터 협착, 야간 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 등은 농기계 대표적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첫째, 농기계 사용 전 반드시 사전 점검을 실시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농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야간 운행 시에는 반사판 및 등화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배려 역시 중요하다. 농기계는 구조상 속도가 느리고 급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추월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농번기 기간 동안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사설

민주당 아니면 고립? 도민 자존심 건드린 전북 정치

전북 정치가 또다시 낡은 프레임 속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민주당 아니면 고립된다"는 식의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과 같은 당이어야 예산을 따오고, 중앙정부와 코드가 맞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얼핏 현실론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도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표를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이제는 전북 도민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온 지역이다. 선거 때마다 압도적인 표를 몰아쳤고, 정권 교체의 순간마다 가장 앞장서 힘을 실어준 곳도 전북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자. 그렇게 오랜 시간 정치적 충성을 보낸 결과 전북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산업은 여전히 취약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새만금은 수십 년째 희망고문이라는 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국가 핵심 SOC와 첨단산업 유치 경쟁에서도 번번이 뒤처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반성과 비전 대신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전북이 고립된다"는 논리를 꺼내 들고 있다. 이는 도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정치 인식에 가깝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는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지역 발전은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예산과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찍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안 된다. 만약 정말 그런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 실패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누굴 찍지 않으면 전북이 위험하다"는 협박성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산업을 살리고 청년을 붙잡고 지역 경제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도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성과로 신뢰를 증명하는 일이다.

전북은 더 이상 정치권의 충성 경쟁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민 역시 특정 정당의 이름만으로 표를 행사하던 시대를 넘어, 누가 지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바꿀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그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아니면 고립"이라는 낡은 구호는 이제 전북 발전의 논리가 아니라, 전북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있다.

오늘의시

진실의 광부 / 박노해

희미한 한 줄기 진실을 따라	비추는 것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에서 진실한 사실을 채굴하는 것 권력에 맞서고 자본과 불화하며 오로지 독립된 고독을 견지하는 것
위험한 현장을 두 발로 누비는 것 침묵하고 있는 말들을 살려내는 것 떨고 있는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거친 양극단 사이에 묻힌 이미 도래한 미래를	진실의 광부, 나는 기자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전북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해양도시과학관 조감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제시가 전북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연안국가로 수산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새만금과 전북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국내외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광대한 해안선과 연안습지, 갯벌, 하구역이 공존해 해양과학을 소개하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3차 재정평가심의회 결정으로 김제시가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국민의 해양과학문화 기본권 향상과 관광객 증가, 지역발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주)

❖ 전북권 해양 관련 시설 부재 -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착수
전북은 국내 해양면적 총 17.65km² 대비 17.3%에 해당하는 3.06km²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50.4%)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 김제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바다와 어우러지는 지점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했다. 서해안 기수역,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과 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독특한 해양환경을 엿볼 수 있어 해양관광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타 시·도에 비해 해양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수산부 신규 해양문화시설 조성계획에도 배제가 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소외감은 한층 고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국립 해양문화시설 유지를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해양과학교육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3월 '국립해양생명과과학

조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 국립해양문화시설 도입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한 김제시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과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 도입을 적극 건의한 끝에 2023년 정부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시키면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재생에너지, RE100 연계 해양도시 콘셉트로 차별성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선정 패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당초 해양생물과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해양생명과학관' 콘셉트를 도출하고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하였지만 타 시·도 유사시설과 차별성 부족, 사업 구체성 미흡 등을 이유로 미선정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는 해양수산부, 전북도와 협의하여 예타 대상사업에 재도전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구상에 대한 보완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콘셉트 수정이 필요하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 해양에너지, 도시공학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미래 해양도시 모델을 보여주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으로 차별성과 정책 시급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새정부 지역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시키는 등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보완 용역을 마친 후 올해 1월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에 다시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하고 해수부-전북도-김제시는 '월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예산처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으며 마침내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3차 재정평가심의회

결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 국비 1,354억원 규모 전북권 최초 해양문화시설 건립 - 지역 해양 교육, 관광 거점역할 수행 기대

최근 국제 사회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해양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교육·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해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1까지 국비 1,354억원을 투입, 김제시 진봉면 (구)심포항 일원에 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확산 기초, 해양에너지 산업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해양 교육·체험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 김제시 국립 해양관광 인프라 확보 - 새만금 해양중심도시 도약 발판 마련 시에 따르면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으로 생산 유발액 1,36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684억원, 고용창출 496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미래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산업으로 도약을 선도하고 있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이에 해수부와 김제시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과 연계하여 인근의 국립새만금수목원,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새만금 방조제 등 새만금 내측 관광인프라와 심포마리나, 망해사 등 기존 관광지를 연결하여 과학과 교육,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해양도시 과학거점으로서 최적지임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BUAN-GUN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금액	세액공제+답례품
100,000원	130,000원
200,000원	204,000원
1,0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2,436,000원
20,000,000원	9,411,000원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 1 **지정기부 야생별 불붙이를 지킵니다**
- 2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